

崔南善의 時調復興論

李 東 英*

目 次

I. 序 論	3. 「朝鮮常識問答」의 時調復興方案
II. 時調復興運動	III. 「歌曲選」의 편찬
1. 時調胎盤으로서의 朝鮮民性	IV. 結 言
2. 朝鮮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	

I. 序 論

六堂 崔南善(1890~1957)은 1890년 庚寅 3월 8일 서울 梨洞(現 長橋洞 부근)에서 韓末 學部所管인 觀象監의 技師(六品) 崔獻圭의 제2남으로 태어났다. 동생 斗善은 이승만정권 때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본관은 鐵原이니 崔瑩 장군의 후예인데 朝鮮中期 이후로는 中人階級이었다.

韓末에 와서 兩班階級의 몰락과 사회적 변혁은 신분의 재편성을 가져왔고, 따라서 경제적인 實權者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당시 六堂家의 신분적 지위는 대단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족하여 六堂의 兄弟들은 여유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六堂은 1904년 10월 15세 때 황실 유학생이란 이름으로 東京府立 第一中學校 특설반에 입학하여 1개월여만에 귀국하였고, 1906년 4월 17세 때 이번에는 자비로 유학을 했다. 이 두번째 유학길에서는 早稻田大學 高等師範 地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理歷史科에 입학하였다. 이때는 전력을 기울여 공부를 시작할 무렵인데 돌연 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학교에서 學生模擬國會를 하는데 上程된 토의안건 중 「朝鮮王來朝에 관한 件」이라는 우리조정에 모욕적인 의제를 택함에 격분하여 그는 한인학생 총연서로써 학교당국에 항의하였다. 그래서 결국 의제는 철회되었으나 학장(田淵豐吉)의 명의로 각 일간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한인학생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70여명의 한인학생들이 모두 동맹휴학을 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육당은 洪命憲와 李光洙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조국을 부흥시킬 방도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六堂은 유학을 통해 조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획을 품고 귀국한 그는 18세 때 新文館을 발족하여 여러가지 單行本을 펴내는 한편, 1908년 11월에는 『少年』誌를 창간하여 이 땅에 새로운 문학을 출발시켰다. 이 『少年』誌는 최초의 교양종합지이면서 거의 六堂 혼자서 집필하고 편집하고 경영한 잡지이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는 『東明』誌를 발간하고 時代日報社 사장을 맡는 등 유능한 저널리스트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개화기에 신문화를 주도한 六堂은 문학에서만 아니라, 역사, 민속, 기행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연속해서 발표하였다.

六堂은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나 개화기에 있어서 李光洙와 더불어 신문화를 주도하던 그는 1920년대에 들어서 일제로부터 민족성을 말살당하여 가던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족계몽과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不咸文化論」(1925년)은 동방문화의 발생지로서 한국을 거론하고 단군신화의 중요성을 밝혀 최초로 우리의 神話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또 「朝鮮佛教」(1930년)와 「朝鮮文化의 本質」(1948년 이전의 집필)은 민족의 사상과 정서 등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한 계몽적 논설이다. 그중에도 六堂은 우리 민족의 문학유산으로서 민족성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시조를 부흥시키자고 하였다.

六堂은 1926년 『조선문단』 5월호에 「朝鮮 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 6월호에는 「時調胎盤으로서의 朝鮮民性民俗」과, 그리고 『조선상식문답』에서 시조 부흥을 주장하고 있다. 六堂의 國文學研究 업적은 시조부흥운동을 겸한 時調研究와 황무지에서 개척한 民俗研究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의 시조부흥

을 주장한 세 편의 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時調復興運動

1. 時調胎盤으로서의 朝鮮民性

위의 본래의 제목은 「時調胎盤으로서의 朝鮮民性和 民俗」이다. 六堂은 이 글에서 첫째 思想의 경향에 따라 세계의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누어 1) 內觀的 인종 2) 外直的 인종이라 하고, 전자는 철학적, 사상적, 변증명(辨證明)적으로 나아가고, 후자는 종교적, 낙천적, 관송적으로 나아가서, 전자는 散文의 경향을 띠고, 후자는 詩的 경향을 취하게 되었으며, 한 가지 詩를 만들어도 전자는 가만히 생각해 하는 그것을 만듦에 대하여, 후자는 소리질러 부르는 그것을 만들었다 한다. 또 音樂의 발달상에 의한 분류로서는 器樂的 인종, 聲樂的 인종으로 나눈다.

우리 朝鮮人은 속으로 속으로 마음을 파들어가는 人種이 아니라, 겉으로 겉으로 마음을 소리지르는 種人으로, 저 두 가지 중에서 猶太的인 後者에 붙이는 種族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우리 朝鮮人은 장단으로 노래를 하는 種人이 아니라, 실로 노래로 장단치는 種人으로, 저 두 무리의 중에서 亞拉比亞的인 後者에 붙이는 種族이었다.¹⁾

라고 하였다. 그는 朝鮮民性을 음악적인 측면에서 속으로 소리를 하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소리를 하고 노래로 장단을 치는 것이니, 바로 시조창이 창으로 소리하고 장단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조는 읽는 문학이 아니라 창하는 문학이란 것이다. 이러한 창하는 문학은 본시 우리민족의 음악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시조는 눈으로 읽고 운율에 따른 리듬감을 즐기는 西歌의 詩 장르와 달리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이다. 당시 時調唱에 대한 六堂의 인식은 개화기 이후 시조가 읽는 文學으로 변화되어감²⁾을 인식하고 시조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1) 六堂全集 9권, 390~391쪽. 玄岩社, 1974.

2) 개화기에 들자 유장한 시조창을 창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급박한 터이므로 적당하지 않았고, 가객이나 기생들의 흥행도 성하지 못하게 되자, 시조문학도

자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朝鮮人は 노래부르기(소리하기) 좋아하는 國民이요, 또 民族이었다. 조선의 음악은 本來의 要用이 神의 앞에서 사람의 뜻을 베푸는 데 있는 즉, 저절로 器 중심일 것이 아니라 聲 중심의 音樂일 수밖에 없었으며, 또 사실 본위의 歌謠일 밖에 없었다. … 내 意思만을 陳述하는 것이 아니라 神을 달래며 신을 기쁘게 할 필요가 있음에 內容과 外形이 한가지 透明하고 和暢함을 主하게 되고 따라서 意味 중심으로가 아니라 曲調 중심의 발전으로 기울어질 밖에 없었다.³⁾

조선의 음악은 ‘聲’ 중심의 音樂일 수 밖에 없었으며, 또 사실 본위의 ‘歌謠’이기에 ‘意味’ 중심으로가 아니라 曲調 중심의 발전으로 기울어질 밖에 없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 시가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했다. 육당은 우리의 민족성을 노래부르기 좋아하는 민족이고 따라서 창으로 소리를 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데서 찾고, 이러한 민족성을 담아내기에 어떠한 시가의 형식보다도 시조의 형식이 적절 아니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읽기를 위한 서구의 문학과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우리의 문학은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의 정서들을 담기에 적합한 문학으로 시조가 가지는 의의를 주장한다. 이는 단지 시조가 정형성으로 인해 절제된 형식미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라는 형식을 만들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온 그 끈질긴 생명력의 근원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조의 의의를 밝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에 대한 문학 연구사적 입장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개화기라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현상들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지닌다. 단순히 우리 것이라는 일차적인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시조라는 것이 우리의 것으로 되어갔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문학에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역사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다각적인 사고의 결과로 시조의 문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는 노래가사로서의 기능이 우세하지만 읽는 시조에서는 시라는 의미가 돌보여야 한다. 이때부터 명칭을 시조사라 부르기도 하고, 시조짓는 이를 시조시인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임종찬, 「식민지시대의 문학(1920)」, 한국문학의 이해, 세종출판사, 1991, 199쪽.

3) 「육당전서」 9권, 393쪽.

이는 왜 시조를 부흥해야 하는지를 한층 더 심도있게 밝히는 주장이다.

「한우님」 하나에서 은통으로 宇宙心을 붙들어버려서 온갖 恐怖와 葛藤에서 解放되고, 秋水秋天같이 밀바다까지 들여다보이는 心境을 가진 그네에게는 懊惱와 悲痛과 내지 沈博과 壯麗가 다 緣分없는 것일 밖에 없었다. — (중략) — 새로 넘쳐 나오는 天地陽和의 氣運을 혼자 맡아 가진 듯한 靑空의 종달새처럼, 팔딱거림과 종잘거림일망정, 그것은 과연 넘치는 즐거움의 激瀾이요, 북받치는 기쁨의 噴泉의 主人임이 옛날의 朝鮮人이었다. — (중략) — 이래서 古代的 朝鮮人은 무엇이라는 것보다 노래의 國民이다 하는 것이 가장 適切함을 깨닫게 하였다. 그네의 淨明한 心情은 아무것에서 보다 그 純樸한 「노래」 生活에서 表象되어 있음을 본다.⁴⁾

조선인은 노래를 좋아하는 民族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그 노래의 始原을 제천의식에서 찾고 있다. 그 民俗으로 古朝鮮의 扶餘, 沃沮, 濊, 馬韓, 弁韓 등 東夷族의 「喜飲酒歌舞」 행사를 예시하고 있다. 소리(聲) 중심의 음악, 사실 본위의 가요, 꼭조 중심의 발전이라는 神 앞에서의 要用說은 卓見으로 수용되어 있다.

2. 朝鮮國民文學으로의 時調

六堂은 1926년 『朝鮮文壇』 5월호에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時調」를 발표했다. 이 글은 본격적인 시조부흥운동의 주장이다. 당시의 문단은 서구문예사조의 이식과, 1925년 카프(KAPF)가 결성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계급문학이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향들은 서구의 문예사조를 받아들일 토양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예사조만 이식시켰고, 후자는 무산계급의 옹호, 나아가서는 혁명에까지 문학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두어 문학의 형식을 부정하면서 문학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모두 시대적 의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같은 현상들은 식민지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들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케에 놓이나 이들의 의식세계와 그 극복 대안에 있어서는 상이한 측면들을 갖고 있었다.

이때, 六堂은 문학(詩)의 危機를 말한다. 「너도 나도 짓는 詩는 동시에 그

4) 앞의 책, 9권 391쪽.

런지 아닌지 모를 허다한 검불을 만들어 내었다. 어떻게 雄壯한 詩熱이며, 그러나 어떻게 乖亂한 詩厄이며,⁵⁾ 하고 詩作에 있어서 자기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무턱대고 外國文學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自己 스스로를 모르고, 自己 스스로에 터잡지 않고 自己 스스로와 상응하지 아니하는 詩心·詩態가 결국 개구리밥 같은 것, 아지랭이 같은 것, 아니 허수아비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⁶⁾ 자기의 것을 기반으로 한 詩, 즉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문학양식을 찾은 것이 時調임을 여기서도 확인하고자 했다.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다.

時調가 한 民族의 獨特한 形式으로 그 民族의 獨特한 情意를 담기에 가장 適當한 胎生及發達의 來歷을 가지고, 그리하여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獨特한 일종의 風味를 含存한 것이라 하면 — 또 그런대로 整頓된 內包와 外延을 가지고 人間 生活의 어느 한 調子와 人間 情味の 어느 한 消息을 條理있게 翻譯 又 表現하는 一方法이 되어서 人類 全詩國에서 작으나 「베들레헴」 같은 한 고을이 된다 하면, 그것이 人類的으로, 全文化的으로 深微한 意義와 價値를 가질 것이 또한 毋論일 것이다.⁷⁾

① 時調는 민족의 독특한 문학형식으로 민족의 독특한 情意를 담기에 적당하고, ② 독특한 風味를 가졌으며, ③ 人間生活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 한다. '詩의 本體가 朝鮮國土, 朝鮮人, 朝鮮心, 朝鮮語, 朝鮮音律을 통하여 表現한 必然한 一様式 — 世界 온갖 系統의 文化, 藝術이 흘러서 흘러서 朝鮮이란 체로 들어가서 발여 나온— 걸려 나온 — 液體인 것은 아무도 양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時調는 조선인을 통해 표현된 양식이다.
- 2) 시조는 풍부한 발전가능성이 있다.
- 3) 시조는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
- 4) 시조는 조선인이 만들어 낸 韻律의 一形式이다.

5) 앞의 책, 9권 386쪽.

6) 앞의 책, 9권 386쪽.

7) 앞의 책, 9권 387쪽.

- 5) 시조는 조선인의 唯一한 成形文學이다.
- 6) 시조는 조선인의 民族生活을 알려준다.⁸⁾

時調는 朝鮮人の 손으로 人類의 韻律界에 提出된 一詩形이다. 朝鮮의 風土와 朝鮮人の 心情이 音調를 빌려 그 渦動의 一形相을 具現한 것이다. 音波의 위에 던진 朝鮮我的 그림자이다. 어떻게 自己 그대로를 가락 있는 말로 그려낼까 하여 朝鮮人이 오랜오랜 동안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서 이때까지 到達한 막다른 골이다. 朝鮮心の 放射性, 朝鮮語의 纖維組織이 가장 壓搾된 狀態에 表現된 「공든 탑」이다.⁹⁾ (시조는 조선인이 만들어 낸 운율의 一形式이다)

時調는 실로 朝鮮에 있어서 句調·音節·段落·體制의 定型을 가진 唯一한 成形文學이다. 思想의 담는 法과 音律의 나타내는 法으로 이상불 快活 順坦한 동시에 悠長 閒雅한 朝鮮情調의 特質을 용하게 織出하는 匹練이다. 말로, 調로, 또 가락으로 다 그곳의 自然과 人情을 아울러 착 달라붙게 터럭 하나 들이 낄 틈 없이 흠씩 表現되기를 朝鮮의 時調같은 것은 世界 詩壇에서 많이 볼 수 없으리라고 할 만하다.¹⁰⁾ (시조는 조선인의 유일한 成形文學이다)

또 한옆으로 朝鮮人の 民族生活 — 더욱 思想的 生活의 발자국을 남겨 가진 것이 不幸히 朝鮮에는 다시 보기가 어려운데 이 時調의 庫裏에 능히 千餘年 계속한 약간의 遺珠가 간직되어 있어, 그 絶無僅有의 一物을 지음은 朝鮮生活의 중요한 一淵源을 알려 주므로 많은 感謝를 그 앞에 드려야 할 일 일 것이다.¹¹⁾ (시조는 조선인의 民族生活을 알려준다).

앞의 인용문은 모두 시조를 부흥해야 할 조건중에 4),5),6)번의 주장을 요약하여 보인 것이다.

六堂은 거둬 '부분을 떠난 전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地方을 내어놓은 세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鄉土性을 除斥한 人類的의 예술이란 것이 있을

8) 앞의 책, 9권 387~8쪽.

9) 앞의 책, 9권 387쪽.

10) 앞의 책, 9권 388쪽.

11) 앞의 책, 9권 388쪽.

리가 없다는 것'¹²⁾을 강조하면서 鄉土의인 것이 世界的인 것이라고 한다.

世界란 — 그 藝術殿堂의 役事가 朝鮮에 대하여 찾는 것이 둘이라 하던 朝鮮은 둘 그것을 供給함으로써 거기 要用을 이루는 동시에 價値있는 地位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朝鮮이 世界的된은 오직 하나 朝鮮으로의 性能을 완전히 發揮함에 있음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서 하던 말이거니와, 여기서 文學에도 詩에도 그 그러함을 굳세게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¹³⁾ 그런데 현재의 문단은 세계성만을 추구하여 향토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詩는 조선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朝鮮의 詩는, 朝鮮人의 詩는 아무 것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더 朝鮮人의 思想·感情·苦惱·希願·美醜·愛惡를 정직하게, 명백하게 영탄 賞味한 것이라야 하며, 그런데 그 第一條件, 根本條件으로 무엇으로든지 「朝鮮스러움」이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詩라야 朝鮮人의 生活內容 又 生活上 需要品으로 意義와 價値가 있을 것은 毋論이요, 進하여 世界文學 世界詩의 一部를 지음에도, 世界가 본디부터 朝鮮에게 要求하는 그것은 이러한 朝鮮적인 詩라야 할 것이다.¹⁴⁾

六堂은 언필칭 조선주의를 강조하거나와 당시의 상황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外來的인 요소를 전연 부인하고 자기과장과 배타적인 忘想에만 빠진다면 固有文化를 자랑하고 傳統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도리어 그 고유문화와 전통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기에서든지 '民族文化의 建設'이란 과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있다면 민족문화의 '加算'일 따름일 것이다.¹⁵⁾

우리 민족의 文化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六堂의 주장에는 새로움의 발전이 없고 복고적 감상만을 가지고 시조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12) 앞의 책, 9권 388쪽.

13) 앞의 책, 9권 389쪽.

14) 앞의 책, 9권 389쪽.

15) 李東英 編, 「李源朝文學評論集」, 民族文化 建設과 遺産繼承에 관하여 260쪽, 1990, 형설출판사.

3. 『朝鮮常識問答』의 時調復興 方案

이 글(시조 부흥방안)은 『조선상식문답(속편)』 제十二항목 文學편에서 밝힌 시조에 대한 견해를 '시조부흥방안'으로 묶었다. 그것은 六堂이 시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시조부흥의 강령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취한 편제이다.

六堂은 시조의 발생에 대하여 '시조의 연원은 필시 신라 향가 중의 어느 종류에서 우러나와서 점진적으로 후세에서와 같은 三章詩의 一體로 고정하였을 것인데 지금 전하고 있는 1천5백수 내외의 시조 중에는 고구려의 乙巴素와 백제의 成忠의 이름을 붙인 것도 있으며 미덥지 아니하며, 그 확실한 成立은 고려증엽의 초기쯤에 있는 것 같다.'¹⁶⁾ 하고 시조가 발전과정에서 시적인 가치가 떨어져갔고 시조 본래의 문학성도 잃은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조가 중국의 律詩, 일본의 和歌와 波斯의 「기태」, 「루바이」와 비등한 독특한 詩形이요 또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성립한 바로되 후에 한 문학 유행의 세에 밀려서 그 발달이 크게 철주를 받고 더욱 고대 작품의 다수가 부지중 散亡하여서 후생으로 하여금 觀感興起할 기연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시조의 명맥이 겨우 전분과 교양이 다 너덕치 못한 이른바 가객의 所有物로서 존속하게 된 뒤에 그 시적 가치는 더구나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중에 있는 시조의 전승은 저절로 呼唱 본위의 것으로 되어서 내용과 調格이 심하면 운율의 규정까지 죄다 등한시되고 다만 저열한 취미에 합하는 音調. 暢順한 것이 好尙流傳되는 비뚤어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¹⁷⁾

六堂의 시조부흥은 단지 양적인 확산만이 아니고 시조 본래의 문학성을 회복하는 질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조부흥의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1) 내용과 형식이 漢詩同居의 기생물인 처지에서 벗어나서 조선적의 무엇을 찾고 만드는 것이요, (제2) 조선어의 美와 力을 발견 또 연마하여 그 수사학적 성능을 천명 발휘함이요, (제3) 천박하고 인습적인 卽景卽興의 비속한 표현을 중시하던 隘陋한 詩境을 醇化 향상하여 거기 높은 예술적 향기와 깊은 사상적 내용이 담기게 할 것이요, (제4) 부름 위주의 시조를 읽는

16) 「육당전서」 3권, 117쪽

17) 앞의 책, 3권 118쪽.

시조, 맛보는 시조, 觀照하는 시조로 돌려서 먼저 시의 절을 갖추게 하고, 이렇게 생긴 시를 노래부르려면 노래부르고, 읊조리며 씹으며 고개숙여 생각하려거든 또 그렇게도 하도록 함이요, (제5) 노래부르는 이른바 「長短」이 있을 뿐이요, 句數 字數의 변동 신축이 심히 너그러워서 심하면 운문인지 산문인지 律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도록 혼란하던 것을 일정한 형태로 정리 規約하여 國民詩形으로의 완성을 기약함 등이라고 하였다.¹⁸⁾

時調의 나아갈 길은 1)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조선스러움, 2) 수사학적 측면에서의 조선어의 미적 특성, 예술적 성취, 3) 卽景卽興을 배경하고 詩境을 醇化, 4) 부름위주에서 관조하는 시조, 5) 율격의 일정한 형태로의 정리 등이다. 육당은 사설시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절제된 형식의 추구는 개방성이 아닌 선비적인 작품의 요구이다. 그렇다면 시조를 규격화, 양식화의 박제품이 아닌 창조적 계승의 장르로서 모색하는 과제에는 미급한 바가 많다. 六堂이 쇠퇴의 길에 접어든 시조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고 國民文學으로서의 位相을 튼튼히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호된 批判을 받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¹⁹⁾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六堂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입장과 취지를 해명해 놓고 있다.

이것으로 새로운 出發點을 삼아서 얼마든지 앞으로 發展시키고 變化시키고 乃至 脫化하여 朝鮮心의 소리됨에 가장 適切한 새 形式도 만들려니와, 그것이 시방까지의 朝鮮詩의 金子塔임을 생각하여 金子塔的 意義 效用을 發揮도 하고, 또 그 本來의 使命을 완성하게도 할 것을 생각하고, 또 힘쓰자 함으로 남다른 精誠을 가질 뿐이다. 朝鮮의 國民文學(民族文學)으로서의 時調를 좀더 밝은 데로 끌어내고, 힘있게 만들고 막다른 골에 길을 터서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으려 함에 남과 같이 다소의 情熱을 가질 뿐이었다.²⁰⁾

또 六堂은 「愛國古時調」(1951년)²¹⁾란 글을 썼는데 국란을 겪을 때마다 애국심과 적개심을 담은 문학이 바로 시조라는 것이다. 당대의 六堂은 최초로

18) 앞의 책, 3권 118~119쪽.

19)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産業社, 1978) 307~316쪽.

20) 앞의 책, 9권 389~190쪽. 「이것은 時調의 지칭이다.」

21) 앞의 책, 5권 439~437쪽.

시조를 연구하고 부흥·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업적을 남겼다.

Ⅲ. 『歌曲選』의 편찬

六堂은 또한 시조부흥운동의 一環으로서 『歌曲選』(1913년 6월)을 신문관에서 간행했으며²²⁾ 또 자작 시조집인 『百八煩惱』(1926년)와 『時調類聚』(1928년)를 한성도서에서 간행하였다. 그리고 『南薰太平歌』를 覆刻하기도 했다.

『가곡선』의 내용은 책머리에 秋人子の 序가 있고, 그 뒤에 例言을 붙여 책의 편찬취지와 참고도서를 살필 수 있게 했다. 이어서 목차가 나오고 다음에 음(音)·조(調)·풍도형용십오조목(風度形容十五條目)·매화점장단(梅花點長短)·장고장단(長鼓長短)·곡명자독법(曲名字讀法)·곡명이칭(曲名異稱) 등 시조창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수록작품은 章을 구별하였고, 편찬에 있어서는 시조를 곡조순에 의하고 있다. 즉 羽調의 初中大葉에서 시작하여 兪편(兪編)으로서 끝낸 것이다. 편찬자는 “此書는 古今 時調中에서 詞彩伎巧와 情理意趣가 족히 日常 吟咏에 供할 것으로 약 六百則을 뽑아서 類分編次한 것이니, 年代는 천수백을 지나고 작가는 百數十에 이른다.”²³⁾고 하였다.

六堂의 『가곡선』 편찬은 『靑丘永言』·『大東樂府』·『歌曲源流』·『南薰太平歌』·『女唱類聚』 등을大本으로 삼았으며 “시조 탐방의 先驅를 作하고 부흥의 기운을 促하자는 微意에서 나왔다.”고 하였듯이 그는 조선 문학사상 시조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이로써 민족성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1928년에 펴낸 『시조유취』만 보더라도 그는 序文에서 “時調는 朝鮮文學의 精華며 朝鮮詩歌의 본류이다. 지금 조선인이 가지는 정신적 전통의 가장 오랜 實在며 예술적 재산의 오직 하나인 成形이다. 그것이 조선인의 예술적 능력의 最良(最良) 部面 최고 능률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그 최대 建立이요, 또 언제까지든지 그 一大勢力일 것은 의심할 수 없다.”²⁴⁾ 라고 갈파

22) 秋人子란 이름의 序는 1912년 癸丑이다.

23) 崔南善, 『歌曲選』 例言, 최남선 작품집 13권, 수록작품은 596수이다.

한다. 시조채집에 있어서 첫째는 문헌적 전승의 수합이요, 둘째는 구전적 원천의 기록이란 점에 유의하였다.

그는 『歌曲選』의 편찬이 時調道 부흥의 유일한 源泉이 되다시피 한 점을 환기시키고, 그후 재간의 요구는 시조유행의 熱騰과 深切을 더해 간다고 말한다.

이즘에 時調를 중심하여 대두된 제가의 연구로서 李秉岐는 「時調란 무엇인가」(東亞日報 1926년 11월 24일~12월 13일), 「律格과 時調」(東亞日報 1928년 11월 28일~12월 1일) 등의 글을 써서 시조를 평시조와 엇시조로 구별하고 初中終 三章의 자수를 논증하였다. 李殷相도 「시조문제」(동아일보 1927년 4월 30일~5월 14일), 「시조문제 小考」(동아일보 1928년 2월 9일~17일), 「시조단형추의」(동아일보 1928년 4월 18일~25일) 등을 발표하여 시조에는 단형, 중형, 장형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단형의 형식을 보이었다. 李光洙도 「時調와 自然」(동아일보 1928년 12월 2일~7일)을 발표하여 시조의 기준형식과 기준형식에서 변체형식이 생긴다고 하였다. 위의 三氏의 연구에 뒤이어 趙潤濟의 「시조자수고」(新興 제4호, 1930년 11월 6일)가 나왔다. 趙박사의 時調字數考에서 나온 결론은 三氏의 연구와 대동소이하나 절대 객관적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됨으로써 일단 시조형식의 연구는 종결을 지은 듯했다.²⁵⁾

이후의 時調研究는 ‘시조의 기원’, ‘시조의 명칭’, ‘시조문학과 시조문헌의 연구’ 등이 속출하였고, 한편 鄭寅普, 李秉岐, 李殷相 등은 창작까지도 활발하였다. 六堂의 가집편찬은 ‘시조부흥논의’의 연속이었고 당시 시조연구와 시조창작에 기여가 컸다.

IV. 結 言

필자의 결론에 앞서 六堂 업적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살펴보면 碧初 洪命

24) 육당전집, 「시조유취」 序文

25) 李東英, 「國文學研究 初期에 있어서 詩歌研究」(도남 조윤제 박사회갑기념 논문집, 1964, 4)

薰는 『백팔번뇌』의 발문에서

六堂은 근년에 드문 時調作家이다. 「개소리 쇠소리 하노매라」, 作家들과 同日하여 말하지 못할 作家이다. 時調라는 朝鮮固有詩形을 다시 살리다시피 한 것이 말하자면 六堂의 노력이다. 六堂은 時調를 우리의 것이라 하여 매우 崇尙하나 詩形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崇尙할 價値가 있을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의미로 日本의 俳句를 싫어하고, 日本의 和歌와 漢詩의 絶句와 및 波斯의 루바이아아트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時調를 崇尙하지 아니한다. 日本의 俳句는 齷齪한 一種 詩形으로 거의 대표라 할 만하니 그 악착함이 稻粒으로 彫刻한 佛像과 恰似하다. 우리의 時調는 日本의 俳句에 비할 것이 아니나, 그 악착한 정도는 究竟 五十보 百보의 차라 崇尙하는 六堂이라도 나의 崇尙하지 아니함을 無理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齷齪한 예술품이 작자와 감상자에게 각각 일종 특별한 흥미를 주는 것은 별개 문제라, 齷齪한 형식을 취치 않는 나도 이것은 否認하지 아니한다. 時調 형식이 齷齪하든지 아니하든지, 齷齪함으로 흥미가 있든지 없든지, 六堂이 그의 임 「조선」에 대하여 사랑하는 情念을 표현함에는 다시 둘이 없는 좋은 형식이라 할 것이다. 26) 라고 하였다.

또 春園 李光洙는 「六堂과 時調」란 글에서 時調와 육당은 國語와 周時經과 같은 관계가 있다. 時調를 國文學 중에 중요한 것으로 소개한 이가 六堂이요, 그 형식을 취하여 새 생각을 가지고 時調를 처음 지은 이도 六堂이다. 「大韓留學生會報」와 『少年』과 또 『青春』雜誌에 國風이라는 題로 발표된 六堂의 수십편의 時調는 時調가 新文學으로 再生하는 선소리였고, 또 六堂의 『歌曲選』은 청년에게 國文學으로의 時調를 보여 준 처음이었다. 이 의미로 六堂은 時調를 부활시킨 은인이다. 27) 라고 말했다.

그 뒤에도 洪一植의 「六堂의 生涯」, 金時泰의 「六堂의 文學觀」, 朴乙洙의 「한국시조부흥운동사」, 朴喆熙의 「崔南善 時調의 正體」, 趙東一의 『한국문학통사』(5) 등에서 논평이 충분히 있다.

필자가 더 보탬 말이 없겠으나 말하자면 六堂의 愛國心은 史學者로서, 思

26) 육당전집, 5권 468쪽.

27) 앞의 책, 5권 469쪽, 「六堂과 時調」, 李光洙

想家로서, 言論家로서, 文章家로서, 묶어서는 國學者로 '朝鮮精神化'를 강력하게 부르짖은 開化期의 가장 先驅者이다. 이중에 국문학분야는 전통문학의 계승을 위한 古典發掘 사업을 위시하여 「朝鮮文學 概說」(1931년 전집 9권)을 집필하다가 '조선문학으로서 문학적 성인의 경지에 이른것은 시조' 뿐이라며, 시조부흥운동에 경주하게 된다. 자기 것을 알려면 시조를 부흥해야 하고, 시조를 부흥해야만 세계문학에서도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平民의 文學이었던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면서 平時調만을 옹호하고 있다.

六堂의 애국심은 『尋春巡禮』(백제구강 기행)와 『白頭山觀參記』(1926년)속에 펴 펴 넘친다. 뿐만 아니라 「조선독립선언문」(1918년)을 기초했고, 2년여의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그런데 時代日報社의 사장된 이후 1928년(38세)에 조선총독부 朝鮮史編修會 위원에 되고, 中樞院參議로 또 1939년(49세) 日本의 괴뢰정부인 만주 建國大學의 교수, 1943년에는 학병 권유차 東京에 가서 明治大學에서 강연한 일 등으로 체절의 물의를 일으켰다. 六堂은 『青春』(1918. 14호)誌에 신문관 창업 10주년 기념을 「十年」이란 題下에 自畫像을 회고하면서 '此童子가 思想家이나 하면 非也이며, 文章家이나 하면 非也이며, 學問家이나 하면 非也이라' 하였다. 이 말이 否定이든 肯定이든 간에 후세의 고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金昌淑文存(1989년)』에 의하면 心山이 대전감옥에 있을 때 典獄이 여러 전향자들의 성명서를 보여주고 마침내 崔南善의 책 『日鮮融和論』을 읽고 감상을 써내라고 강요하므로 책을 찢고 변절을 꾸짖은 詩를 썼다. 이때가 1933년이다. 早年부터 朝鮮魂을 부르짖고 國土禮讚을 하던 崔六堂이 어찌하여 쉽게 체절을 하였는지 不可思議의 일이다. 어쨌든 그의 학문적 업적은 開化期에 獨步의이었다.

鷲山 李殷相은 <六堂輓歌>에서

아무도 모를적에 아는 이 당신이요
모두들 잠든속에 깬이라사 당신이라
가시발 언덕길 넘어
혼자 앞장 서더니 (제3절)

소리쳐 목이언채 몇 고개나 넘었던고

진구령 모래톱에 메투리 신발자욱
무명베 두루막 자락
펼럭이며 갔었소. (제4절)

산마루 낭떠러지 비바람 치욕적에
우수수 잎이지다 나무마다 갈으리까
서리에 떨어졌어도
단풍이라 붉습디다. (제8절)

누구라도 民族文化에 있어서 특수성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흔히 固有文化와 傳統이란 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자기과장으로 나타나서 나중에는 排他的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것은 당연한 歸結이기도 한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六堂의 時調復興論은 역사적 心情만은 있고 역사적 方法이 없었다고 하겠다.